

호주 시드니 거주 한인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연구: 문화적응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하 춘 광
(경남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시드니 이민 한인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중년층 2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지지의 직접효과와 문화적응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문화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우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과 우울변인을 부분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외 이주 한인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함과 동시에 해외 이주 한인 이민자 정책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용어: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 우울, 시드니 이민 한인 중년층

■ 투고일: 2014.1.27 ■ 수정일: 2015.3.16 ■ 게재확정일: 2015.4.17

I. 서론

삶을 어떻게 가치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개인 생애의 총체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보다 넓은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사회에서 충족하지 못한 내적인 욕구를 환경을 바꿈으로써 충족하고자 하는(오성희·박기환, 2007) 의지 또한 강하다. 그러나 이민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사건이며, 이민의 경험은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누리던 생활방식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재적응은 문화적 가치체계와 사회적 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손신 외, 2007). 또한 가족, 친구 등 기존의 사회적 지지를 상실함으로써 고독, 외로움 등의 정서적 장애를 겪을 수 있고 한국에서 누리던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전통적 가치의 상실은 문화부적응으로 인한 우울 등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가져 오게 된다(Berry et al., 1987; Min et al., 2005; 한금선, 2000; 안황란, 2007; 오성희 외, 2007).

한편, 한국인의 호주 이민과 한인 중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 반세기에 걸쳐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백호주의(White Australia)정책에서 비차별적, 개방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며 이와 병행하여 수반된 다문화 정책으로의 이행이다. 북유럽과 서유럽 백인의 이주만을 허용했던 호주는 1973년 이후부터 아시아인을 비롯해 비유럽인에게도 이민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의 호주 이민이 시작 되었는데, 호주의 한국인 이민자 역사를 보면 1975년 월남전이 종식된 후 베트남으로부터 자생력이 강한 한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보다 호주행을 택하였고 1980년대 이후 일반이민과 사업이민 그리고 뉴질랜드로부터 우회이민자 등이 유입되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호주 내 한국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26배 이상 증가하여 호주는 재외 한인동포가 급속히 증가한 국가가 되었으며, 호주 내에서도 이민 집단 중 가장 급속히 성장한 집단(김영성, 2006)이다.

호주 통계청(ABS)의 2011년 인구주택조사(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에 따르면 특히 시드니 지역은 한국이민자들이 출신국 순위에서 8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로즈(Rhodes)지역이 13%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뉴잉턴(Newington) 12%, 매도뱅크(Meadowbank) 11% 순으로 시드니의 올림픽파크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호주동아일보, 2014). 시드니 사회에서 久胞는 오래된 교포라는 말로 맨주먹으로 호주에 와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가족과 더불어 호주에 정착한 개척 이민자들이고 新胞는 투자이민이나 사업이민 혹은 자녀교육을 위해 호주로 이민을 와서 남의 나라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이민자들을 지칭하는데 현재의 중년층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다.

호주 이민 중년층은 다양한 동기로 이민을 왔지만 일반적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의 이민 양적 확대기에 큰 폭으로 유입되었는데 먼저, 기술 및 취업이민을 통해 들어 온 집단으로 이민 당시 20-30대의 젊은 고학력계층이었으며 환경과 생활양식에의 적응이 빨라 정착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되었다(김영성, 2006). 다음으로, 한국인의 삶에서 자녀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민자의 상당수가 자녀교육을 위해 호주로 이주하였고 시드니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녀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여(김영성, 2006)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호주 한인 50년사(2008)에 의하면 新胞에 해당하는 중년층 이민자들은 한국인들 간에 생업전선에서의 경쟁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교포들 간의 갈등으로 사회적 지지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부부간의 갈등이 가족 지지체계를 위협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호주한인 50년사, 2008, pp.454-455).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호주사회 적응을 위한 인간관계 즉,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축 및 강화(안황란, 2007; 오성희 외, 2007; 한금선, 2000)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인간 간의 협력과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키는 규범이며 자신의 일상 속에서 정서적 관심과 위로, 실질적인 도움, 이해 등을 제공하고 상호 교환하는 관계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해외 이주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김범중·이홍직, 2011; 박형원, 2010)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오금숙·김윤정, 2013; 이지현 외, 2013; 성현란, 2011)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및 우울과도 관련성이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

적응을 잘 하게 되고, 우울을 예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며(Kovacev & Shute, 2004; Ataca & Berry, 2002) 문화적응이 어려울수록 우울 및 불안 등 정신건강문제를 유발시키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한다(Hovey & Magana, 2002; Griffin & Soskolne, 2003; 정선영 외, 2013).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사회를 떠남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들의 인간관계와 심리적 변화는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호주 이주 한국인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 심리학, 정치학(김영성, 2006; 오성희 외, 2007; 이규영·김경미, 2010)등의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고 호주 내 한인들의 이민동기와 실제생활(설병수, 2000)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호주 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드니 이민 중년층을 대상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그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할 것으로 보이는 문화적응과 우울에 대해서도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중년기 이후의 이민은 이민자들에게 커다란 생애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드니 한인 이민자들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 어떤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년층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임상적, 정책적 제언과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특히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 중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 이민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련 연구들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 지지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 즉,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뜻하는 것으로 신체적 건강, 우울, 자살 등에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정서적 관심, 위로, 실질적인 도움, 이해 등의 교환을 의미하며(이민수, 2005), 주요 효과로 긍정적인 결과, 예측가능성, 삶의 만족, 자기 가치의 인지를 제공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인다고 한다(이은주, 2003).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서 여러 개인 및 집단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된다(김명자, 1998). 또한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노화 등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역할에서 도전과 변화들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와 더불어 호주로 이민 온 중년층은 새로운 세계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잃음으로써 소외, 외로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져 와서 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Berry et al., 1987).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Cobb, 1976), 적응의 문제를 완충시키고 개인 적응을 도울 수 있다(Vaux, 1988). 결혼 여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구차순, 2007) 이민자들은 모국 출신의 가족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같은 나라 출신인 사람과의 관계는 체류자나 이민자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지지원천(송지현·이태영, 2014)이 되고 있었다. 같은 민족 네트워크는 이민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였고(Sykes & Eden, 1987; Berry et al., 1987; Ying & Liese, 1991; Porter & Zhou, 1994), 이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망으로 모국 친구를 꼽고 있다(김도희, 2008; 홍달아기 외, 2012). 그러나 같은 국가 출신보다 주류사회의 구성원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안녕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다(Birman, 1998; Birman et al., 2002; birman et al., 2005).

결과적으로 이주국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는 이주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Kovacev et al., 2002; Poyrazil et al., 2004; Levitt et al., 2005; 김현경, 2009; 박철민, 2012; 조공민 외, 2011; 이인정, 2007)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 한국인 친구, 의미 있는 타자 등 비공식적 관계망으로부터 필요시 정서적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로도 표현되는데 Neugarten 외(1961)는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주위환경에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인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욕구의 성취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상태 또는 생활 전반에 대한 기대와 실제 간의 일치 정도에서 느끼는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의 개념으로(Burr, 1970; 김원배, 2009; 윤명숙·이묘숙, 2011)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박명숙·강희경, 2009). 이러한 삶의 만족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면 삶의 만족이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과 자원으로부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개인의 기대와 현실적 보상사이의 일치이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감정 상태로서, 과거와 현재의 개인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일 뿐 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의 긍정적 정도(김원배, 2009)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민자들의 경우, 사회적지지, 문화적응, 우울, 현실의 기대 부흥, 가족 기능(오성희 외, 2007; 손신 외, 2007; 김현경, 2009; 박명숙 외, 2009; 박형원, 2012) 등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여 삶의 만족도를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인 중년층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느끼는 행복으로 주관적인 지각이며, 긍정적인 자아상과 태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행복, 환경에 대한 긍정적 적응,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3. 문화적응 및 우울

Beiser과 Hou(2006)의 문화적응이론에 의하면 적응은 개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며, 문화적응 요인이 관리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Berry 외의 (1987)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응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개인들에게 신체적,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적응이란 하나의 문화적 집단이 주류 사회 문화의 신념(Host Culture)과 실천을 받아들이는 한 과정으로 이해 되기도 한다(Mills & Henretta, 2001).

이주민에게 문화적응이란 문화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이주 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지속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생겨난 현상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Redfield et al., 1936)으로, 문화적응은 두 문화에 속한 두 집단이나 개인들이 서로 접촉할 경우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서로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다(Cullar et al., 1995). 따라서 문화적응은 집단적 경험임과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심리내적 과정(Berry, 2005)으로 이주해 온 집단의 문화와 토착집단의 문화 사이에 지속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에 의한 심리적, 사회적 교환을 수반하며(Cabassa, 2003), 문화적응과 동시에 심리학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연적' 특성을 갖는다(Berry, 1980). 문화적응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접촉으로 인해 유발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적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이민자의 경우, 주류사회의 사회 환경에 순조로운 적응을 이루어가는 경험상의 과정을 문화적응이라고 하며 이민자들에게 문화적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손신 외, 2007). 호주 이민 한인 중년층들은 자신이 어려서 부터 살아왔던 익숙한 문화권을 떠나 호주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권에 진입하면서 언어 문제, 새로운 환경, 낯선 음식, 가치관의 차이, 대인관계,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해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Berry, 1991). 그러나 현재까지 백인 우월주의적 국가 이미지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호주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중년층의 경우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화적 충격과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배제와 편견, 폐쇄된 삶을 경험하면서 주류사회융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문화적응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 갔다고 해서 모두가 그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민 갔던 이들 가운데 현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역이민

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한국의 총 이민자는 11,17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역 이민자는 3,000여 명에 달했다(주간 동아, 2003.9.25).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은 집단적 경험임과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심리내적 과정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화적 성격(Berry, 2005)의 문화적응으로 정의한다.

한편, 우울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심,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며 개인의 불안정한 삶이 지속될 경우 표면적인 문제로 정신병리 현상을 보일 수 있으며(Warshaw, 1992), 일반적으로 소외감 또는 외로움 등과 관련이 있다(류연주 외, 2008). 우울은 전 세계인의 15% 정도가 경험하게 되는 인간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로, 삶의 의미, 즐거움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고통스런 감정이다.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김효순·하춘광, 2010; 송광례 외, 2010), 우울감이 낮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져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박형원(2012)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독립적인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지지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인 커뮤니티와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극적인 정서적 대처반응으로서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호주 이민자들에 대한 오성희 외의 연구(2007)에서는 언어사용수준, 경제적 문제, 이민 적응 단계에서 현실과 기대와의 차이, 자녀교육문제, 사회적 관계형성 등이 호주에 이민 온 한국인 이민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심리적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근심, 침울함, 상실감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본다.

4. 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우울, 삶의 만족도 관계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을 형성시켜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Min et al., 2005; 김병석, 2000; 민미희 외, 2005).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인들은 삶의 만족도나 문화적응 수준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Berry, 1997; Berry et al., 1987;

Vedder & vitea, 2005; Beiser & Hou, 2006).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상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극복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Weeraporn, 2004)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 삶의 만족도(정선영, 2013)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우울, 불안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이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역의 생성과 발전은 지역사회 내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지원자원의 활성화와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이민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압박감과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주요변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Noh & Avison, 1996). 호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녀 이민자 모두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이 심리적 건강 요인인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성희, 2007). 미국 거주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손신 외(2007)의 연구에서 한인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한국의 노인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뉴욕시에 형성된 대규모 한인 밀집지역(ethnic enclave)이 사회자원으로서 한인 노인들의 미국문화 적응상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주요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에서 중년층 이민자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며 비공식적 지지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지만(김경신, 2005; 박명숙·강희경, 2009), 노길희(2012) 등의 연구에서는 미국 거주 한인 노인들의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대규모 한인 밀집지역인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독특성이라고 해석하였으며 미국 이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경림(199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에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이나 연구방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지의 개념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볼 수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및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검증되고 있다.

한편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미국대학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인구사회학적 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켜(Poyrazil et al, 2004) 문화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earle & Ward, 1990; Shenkar, 2001; Pothukuchi et al., 2002; Poyrazil et al., 2004; 손신 외 2007). 사회적 지지의 경우, 서구 문화권보다는 동양 문화권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인

이민자들은 한국인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교민 집단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김병석, 2000; 김삼오, 2002). 또한 한국인 친구가 있는 한국 이민자들은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며, 문화적응과 우울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et al., 1987; Jon, 1997; Kim et al, 2005). 사회적 지지의 비공식지지 중 친구나 기타 의미 있는 타자의 지지가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같은 나라 출신인 사람과의 관계는 체류자나 이민자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지지원천으로 본국 출신 친구가 있는 것이 심리적 적응이나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Sykes & Eden, 1987; Berry et al., 1987; Ying & Liese, 1991).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비효과적일수록 개인의 불안 수준이 높고, 문화적응 실패는 대상자의 우울수준과 자살충동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Lee, 2004, 정영미, 2014).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허재은·태명숙, 2014; Greenglass et al., 2006; Lee & Jeon, 2011; 최현주, 2006; 노병일·모선희, 2007; 강선경, 2009; 박순미, 2010;).

이민자들의 문화적응과 우울의 관계를 보면 문화적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생존을 위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조화시키는 과정에는 시간적 요소가 전제되며 급격한 변화나 기존 문화의 무조건적인 포기를 방지하는 적응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Vijer & Phalet, 2004).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문화적응상의 심리적 압박의 개념은 고유문화의 상실에 따른 우울증,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근심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Aycan & Berry, 1996) 타문화로부터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는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진다.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우울 및 불안 등 정신건강문제를 유발시키게 되고 문화적응이 안될 경우 이민자들은 우울을 경험하게 되며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Hovey & Magana, 2002; Griffin & Soskolne, 2003; 정선영 외, 2013).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 가설1.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문화적응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문화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6.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7.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및 우울을 매개변수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출신으로 호주의 시드니로 이민 온 40세 이상~65세까지의 남녀 중년층¹⁾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지역은 Eastwood, Strathfield 지역 등 한인 밀집지역으로 한인상점 및 음식점, 한인 천주교회, 한인 개신교회, 사찰 등에서 임의표집방식으로 표본추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년층들은 설문지 이해와 독해가 가능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되지 못한 29부와 회수가 되었더라도 설문지의 총 문항 수 가운데 70% 이상을 완료하지 않은 설문지 등 총 67부를 제외한 233부를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1) 기존의 중년층의 연령범위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Erikson(1963)은 40세를 중년의 시작 연령으로 보았고, Buhler(1986)와 45세에서 65세 사이를, Papalia(1974)는 40세에서 65세를 Hurlock(1974)은 40세에서 60세를 중년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40세에서 65세까지를 중년층으로 정의한다.

3.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으로 정의한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Diener 외(1985)에 의하여 개발되고 타당화 되었으며, 류연지(1996)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개의 긍정적인 진술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나의 생활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비슷하다.' '나의 생활 여건은 아주 좋다.'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중요한 일들을 이루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겠다.' 등이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67이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 변인의 척도는 가족, 친구, 그리고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며(Zimet et al., 1988),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으로부터 얻는다' '나의 가족은 나를 도우려고 진정으로 노력 한다' '나는 가족들과 나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나의 가족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꺼이 도와 준다' 등 가족관련 4문항, '나의 주변에 있는 한국친구들은 나를 돕기 위해 정말로 노력한다' '나는 상황이 어려울 때 한국 친구들에게 의지 한다' '나는 한국친구들과 나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한국 친구가 있다' 등 친구관련 4문항,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주변에는 도움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나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나에게는 진정한 위안을 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나의 기분에 관심을 두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등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 4문항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도희(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1) 거의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은 .765이다.

다. 매개변수

1) 문화적응

문화적응 변인의 척도는 홍재승(Hong, 2001)이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 성인들의 문화적응 연구를 위해 개발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언어의 친밀성과 풍습, 문화유산, 인종의 자부심, 인종간 거리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설문지를 호주의 실정에 맞게 다소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평소에 사용하시는 언어는 무엇입니까?’²⁾ ‘당신은 주로 어떤 문화를 받아들여 하십니까?’³⁾ ‘당신이 생활하는데 어떤 가치관을 중요시하나요?’⁴⁾ ‘당신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⁵⁾ ‘당신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어떤 친구와 잘 어울립니까?’⁶⁾ 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호주 문화적응력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중간정도는 양문화(biculture identify)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은 .806이다.

2) 우울

우울 변인의 척도는 Zung(1965)의 자가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문항 중 심리적 우울에 해당하는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송광래 (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우울 4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낮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 내용은

-
- 2) 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모국어만을 사용한다, ②거의 모국어를 사용하며 가끔 영어를 사용한다, ③모국어와 영어를 비슷하게 사용한다, ④거의 영어를 사용하며 가끔 모국어를 사용한다, ⑤영어만을 사용한다.
 - 3) 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한국문화만 지킨다, ②대부분 한국문화를 받아들이지만 가끔 호주문화도 받아들인다, ③한국문화와 호주문화를 비슷하게 받아들인다, ④대부분 호주문화를 받아들이지만 가끔 한국문화도 받아들인다, ⑤호주문화만 받아들인다.
 - 4) 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모국의 가치관만이 중요하다, ②대부분 모국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호주적 가치관도 조금은 중요하게 여긴다, ③모국의 가치관과 호주의 가치관이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긴다, ④대부분 호주의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모국 가치관도 조금은 중요하게 여긴다, ⑤호주가치관만이 중요하다.
 - 5) 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아주 자랑스럽다, ②대부분 자랑스럽다, ③조금 자랑스럽다, ④자랑스러움은 없지만 부정적인 생각도 없다, ⑤부끄럽다.
 - 6) 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한국 친구들과만 어울린다, ②대부분 한국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가끔 호주(혹은 다른나라) 친구들과 어울린다, ③한국친구와 호주친구들과 비슷하게 어울린다, ④대부분 호주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친구들과는 조금 어울린다, ⑤호주친구들과만 어울린다.

‘나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 ‘나는 가끔 울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밤에 잠을 설칠 때가 있다.’ ‘나는 별 다른 이유 없이 피곤해 진다.’ 등이다. Cronbach's α 값은 .763이다.

4. 자료처리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얻었으며,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으로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로 사용된 변수의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가설을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기 위해 Amos ver.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 변수 간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으며 구조방정식에 기초하여 산출된 값들은 측정변수에 기초하여 산출된 값들에 비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고,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36.9%, 여성이 63.1%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0세 이상인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40 - 45세가 33%로 가장 많았고, 51-55세가 19.6%, 46-50세가 17.6%, 56-60세가 14.6%, 61 - 65세가 14.2%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51세로 나타났다. 종교는 개신교가 44.2%, 천주교 25.8%, 불교 19.3%, 무교 및 기타가 10.7%로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전문대졸 이상이 74.4%로 고학력자들이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21.9%, 중학교 이하 졸업은 3%였다.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을 보면, 15년 이하가 4.3%를 차지

하고 있다. 20년 이하는 5.6%, 21년 이상 거주했던 경우는 89.3%로 대부분의 중년층 이주자들은 청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거주기간을 보면 21년 이상이 31.8%로 가장 많았고, 11-15년이 19%, 16-20년이 18.5%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6-10년 사이는 12.9%를 나타냈다. 배우자 유무에서 88.4%가 유배우자였고 무배우자는 8.6%로 나타났다. 이민결정 동기로는 가족 모두가 이민한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고, 환경문제나 결혼 등으로 이주한 경우가 25.3%였다. 다음으로 20.6%가 자녀교육 문제로 이민을 택했으며 친지의 초청으로 이민을 온 경우도 10.7%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 N(%) | 변인 | | N(%) |
|--------|--------|-----------|-----------|----------|-----------|
| 성별 | 남자 | 86(36.9) | 한국거주기간 | 15년 이하 | 10(4.3) |
| | 여자 | 147(63.1) | | 16-20년 | 13(5.6) |
| 연령대 | 40-45세 | 77(33.0) | 호주거주기간 | 21년 이상 | 208(89.3) |
| | 46-50세 | 41(17.6) | | 5년 이하 | 41(17.6) |
| | 51-55세 | 46(19.7) | | 6-10년 | 30(12.9) |
| | 56-60세 | 34(14.6) | | 11-15년 | 44(18.9) |
| | 61-65세 | 33(14.2) | | 16-20년 | 43(18.5) |
| 학력 | 중졸 이하 | 7(3.0) | 이민결정동기 | 21년 이상 | 74(31.8) |
| | 고등학교 | 51(21.9) | | 가족이민 | 85(36.5) |
| | 전문대 이상 | 174(74.7) | | 친지초청 | 25(10.7) |
| 종교 | 불교 | 45(19.3) | 자녀교육 | 48(20.6) | |
| | 천주교 | 60(25.8) | 경제적 문제 | 14(6.0) | |
| | 개신교 | 103(44.2) | 결혼 | 24(10.8) | |
| | 기타 | 24(10.3) | 환경문제 및 기타 | 35(14.5) | |
| 배우자 유무 | 유 | 206(88.4) | | | |
| | 무 | 20(8.6) | | | |

2.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에 사용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2>에서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상관계수의 크기가 큰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사전 점검으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 값과 공차한계를 살펴보았다. VIF 검사를 수행 한 결과 값이 모두 1과2사이에서 있었으며 공차한계도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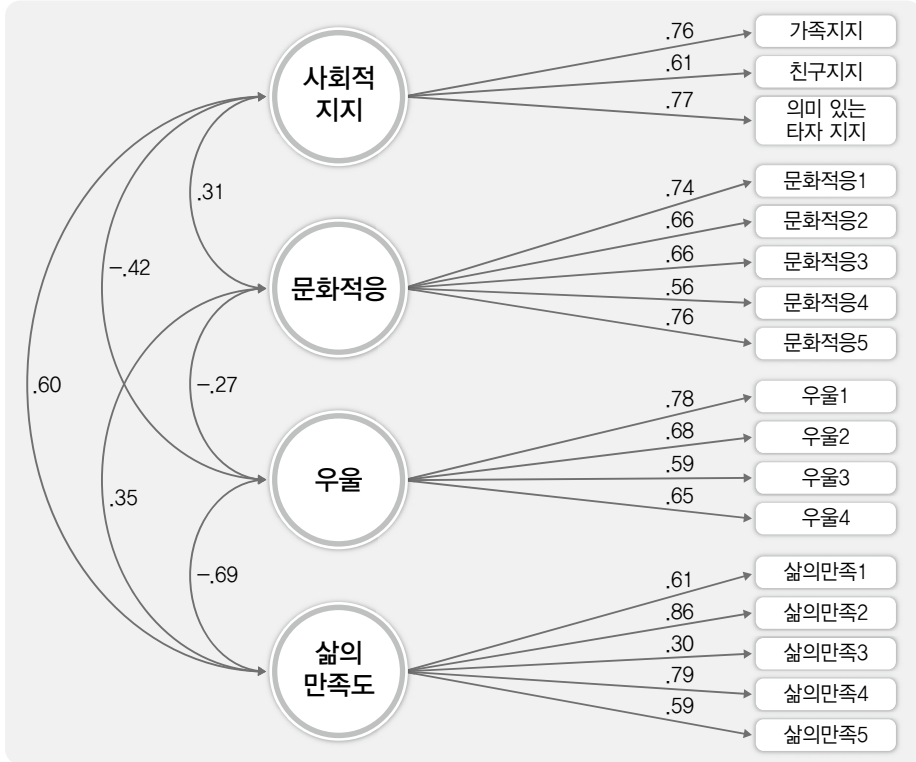
| | 사회적 지지 | 우울 | 문화적응 | 삶의 만족도 |
|--------|---------|---------|--------|--------|
| 사회적 지지 | 1 | | | |
| 우울 | -.226** | 1 | | |
| 문화적응 | .172* | -.202** | 1 | |
| 삶의 만족도 | .393** | -.585** | .263** | 1 |

* $p < .05$, ** $p < .01$, *** $p < .001$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로 사용된 변수의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는 .925, CFI .948, RMSEA .0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그림 1. 측정모형



4.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가.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유의한 경로계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의 통계치가 χ^2 는 177.762***($df = 113$), TLI가 .925, CFI가 .948, RMSEA가 .050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표 3). 본 연구의 측정 결과 문화적응 → 우울, 문화적응 → 삶의 만족도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p < .05$)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3. 적합도 지수

| 모형 | χ^2 | TLI | CFI | RMSEA |
|------|----------------------|------|------|-------|
| 측정모형 | 177.762***(df = 113) | .929 | .948 | .050 |

나. 직접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직접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B = .313$), 즉 시드니 이민 중년층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B = -.370$). 셋째,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B = .348$). 넷째, 문화적응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B = -.155$). 다섯째,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지지되었다($B = -.516$). 여섯째, 문화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은 기각되었다($B = -.105$). 표준화 계수를 근거로 설명하면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우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좋은 예측변인으로 파악되었고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이민자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호주사회에 보다 더 문화적응을 잘 할 수 있으며 우울도 감소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 경로 | 경로계수 | | SE | t값 |
|-----------------|---------|-------|------|-----------|
| | β | B | | |
| 사회적 지지 → 문화적응 | .265 | .313 | .072 | 3.665*** |
| 사회적 지지 → 우울 | -.332 | -.370 | .082 | -4.045*** |
| 사회적 지지 → 삶의 만족도 | .237 | .348 | .057 | 4.149*** |
| 문화적응 → 우울 | -.164 | -.155 | .090 | -1.831 |
| 문화적응 → 삶의 만족도 | -.391 | -.516 | .070 | -5.608*** |
| 우울 → 삶의 만족도 | .084 | .105 | .054 | 1.558 |

* $p < .05$, ** $p < .01$, *** $p < .001$

다. 매개효과 검증

1) 매개효과 평가 및 측정 연구결과

연구모형 결과표에서 잠재 변수 간 경로계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수인 문화적응과 우울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총효과 $B=.597$, 간접효과 $B=.249$ 로 총효과의 42%를 간접효과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5). 따라서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문화적응과 우울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 매개효과 분석결과

| 모형 | 직접효과 | | 간접효과 | | 총효과 | |
|-----------------|---------|------|---------|------|---------|------|
| | β | B | β | B | β | B |
| 사회적 지지 → 삶의 만족도 | .237 | .348 | .169 | .249 | .406 | .597 |

2) 모형비교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

표 6.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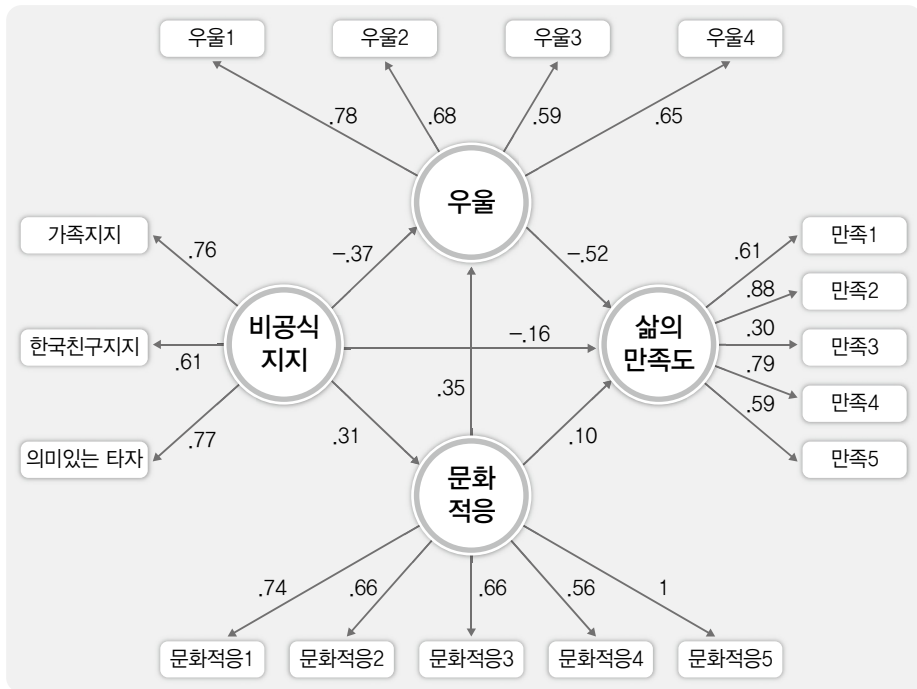
| 모형 | χ^2 값 | df | TLI | CFI | RMSEA |
|--------|------------|-----|------|------|-------|
| 부분매개모형 | 177.162*** | 113 | .929 | .948 | .050 |
| 완전매개모형 | 196.624*** | 114 | .911 | .934 | .056 |

* $p<.05$, ** $p<.01$, *** $p<.001$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간에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의 χ^2 값은 196.624(df = 114, p=.000)이며, 부분 매개모형의 χ^2 값은 177.762(df=.113, p=.000)으로 χ^2 값의 차이가 18.852(df=1)로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유의수준 $p<.05$ 에서 χ^2 값의 차이가 3.84이상이면 삭제된 1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되며 본 연구에서는 검증 결과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자유도 1이 작은

것으로 차이가 나고 χ^2 값이 18.852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삭제된 1개의 경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완전매개 모형보다 부분매개 모형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TLI, CFI, RMSEA 등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비교할 때에도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림 2, 그림 3).

그림 2. 부분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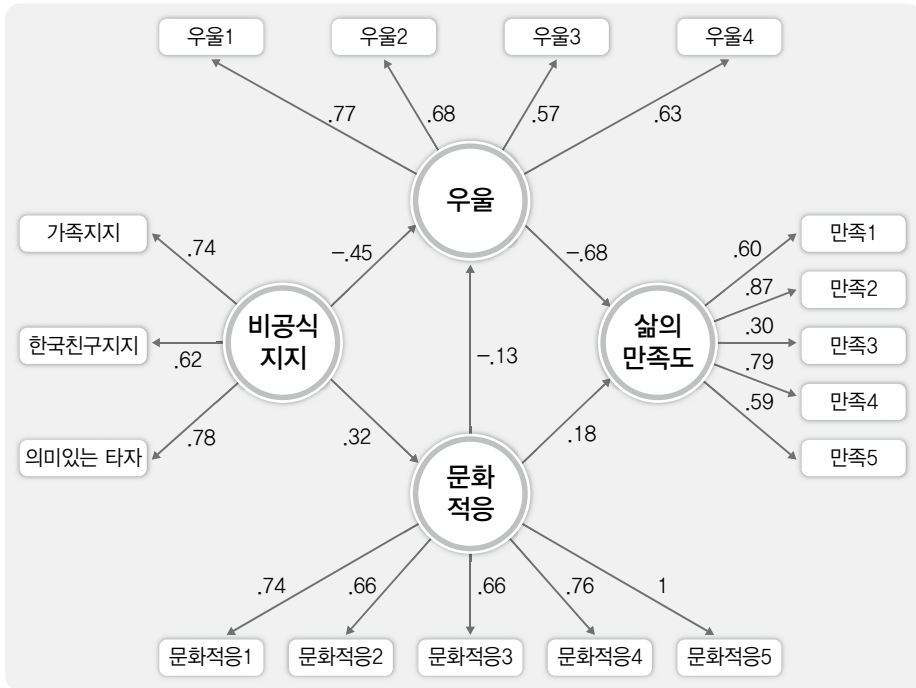


각 내생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에 대한 다중상관지수의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내생 잠재요인인 문화적응의 분산 중 9.8%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설명되며, 우울의 분산 중 19.7%는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분산 중 60%가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우울에 의해 설명된다.

표 7.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 | |
|--------|------|
| 문화적응 | .098 |
| 우울 | .197 |
| 삶의 만족도 | .600 |

그림 3. 완전매개 모형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인 중년층 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문화적응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 현재 시드

니에 거주하는 중년층 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기술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과 삶의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기존연구들(김삼오, 2002; 이민수, 2005; 이인정, 2007; 오성희, 2007; 손신 외, 2007; 강선경, 2009; 조공민 외, 2011; Sykes & Eden, 1987;)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심리적 안정으로 문화적응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가 잘 될 경우 개인의 우울수준이 낮아지며(김효순 외, 2010; 송광례 외, 2010),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박명숙 외, 2009; 김원배, 2009)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중년층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문화적응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인 이주민 혹은 외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Berry et al., 1987; Aycan & Berry, 1996; Berry, 1997)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 소수민족 지역사회에 고착화되는 현상은 문화적응 과정상의 분리나 소외의 결과가 아닌 적응을 위한 자발적 선택의 방편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문화적응상의 압박이나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의 유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손신 외, 2007)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역의 생성과 발전은 지역사회내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자원의 활성화와 공급을 도와 이민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압박감과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주요변인으로 작용(Noh & Avison, 1996)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응과 우울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본 연구가설에 따라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연구모형에 의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들(Berry et al., 1987; Berry, 1997; Min et al., 2005; Vedder & vitya, 2005; Beiser & Hou, 2006; 김병석, 2000; 민미희 외, 2005)과도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시드니 이주 한인 중년층에게 문화적응과 우울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 주요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이민사회에서 중년층 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년층 남녀이민자 모두에게 가족관계, 친구관계, 의미 있는 타자를 통한 교류 등이 심리적 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한인 중년층은 생애 동안 이루어진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근거함으로 인해 이들의 호주 내 사회적 지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결핍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호주 이주 한인 중년층의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시킬 필요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민자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족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다. 현재 호주 교민사회에서 가정문제 중 부부간의 갈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혼에 대한 상담이 많은 편이다(호주한인50년사, 2008). 부부간의 갈등은 이민자 가족의 기능 저하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인 복지회에서는 심리 상담을 통하여 이들 문제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상담이 요망되는 경우는 여성의 공간 및 정신심리치료 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자녀와의 갈등문제도 중년층 이민자들을 괴롭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자녀와의 갈등은 대부분 언어적 갈등, 인종적 갈등, 문화적 갈등에서 오는 정체성의 문제와 세대 차이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한인 복지회에서는 전문가들을 통하여 가정세미나 및 도서 발행,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하여 가정해체의 위기에 개입하고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지지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인단체, 한인 지역사회 언론,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한인 중년층들의 지역 사회내의 봉사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단체를 구성, 참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조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간관계의 확대와 협력, 지지의 기회를 증진 시키는 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호주 한인 복지회에서는 2007년 이래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Camisy, Eastwood, Paramata, Strithfield, Chatwood 등 시드니의 한인 밀집 지역에 사회복지사와 교사, 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전화상담이나 면담상담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 특별 프로

그램을 통하여 전략적인 복지서비스를 교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호주한인50년사, 2008). 이와 함께 비슷한 또래의 세대들이 이민사회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대안을 찾는 장을 갖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복지 단체나 종교단체 등 한인사회의 구심체가 되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만남의 장을 마련하거나 멘토링 서비스 등 호주 내에서 사회적 지지원 연결을 위한 이민자 복지관련 서비스나 세미나, 이벤트 등에 참석할 기회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 전략적인 복지서비스를 중년층 이민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응과 우울은 시드니 이민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년층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낮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호주 이주 중년층의 경우 문화적응보다는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화로의 진입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주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주자들은 우울, 정신분열 증상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갖는다(Short & Johnston, 1997; Kou et al., 2008).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이민사회는 이질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이민자들에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한인커뮤니티의 종교단체,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및 위기개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와 관련된 연구는 이민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변인을 밝혀내고 각 변인들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해외 이민자 중 호주에 이민 온 한인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문화적응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와 함께 해외 이민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 이주자를 위한 사회적 지지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연결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이민자들이

현지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추후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은 시드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중년층으로 하였다. 따라서 추후 해외 각국의 한인 이민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에 대해 반복, 또는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지를 회수하는데 있어서 20% 이상의 설문지가 누락되었다. 그 가운데는 회수가 되지 않은 설문지도 있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서도 질문의 70% 이상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는 제외시켰다.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대상자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서 추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도구인 설문지의 내용 중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우울 등에 한정하여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삶의 만족도 관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있는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하춘광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과 중년층의 문화적응 및 삶의 질이다.

(E-mail: hachkw@kyumgnam.ac.kr)

참고문헌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pp.319-359.
- 김도희(2008). 결혼이민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영향연구: 문화적응 매개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교문사.
- 김미정, 김귀분(2013).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영향요인. *동서간호학회지*, 19(2), pp.150-158.
- 김범중, 이홍직(2011). 미국 이주 한인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자본 특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3(1), pp.145-148.
- 김병석(2000). 호주이민의 배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NSW 거주 한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김삼오(2002). 호주이민 더 늘려야 한다. *OK TIMES*, 100, pp.47-51.
- 김영성(2006). 호주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거주이동. *지리학연구*, 40(4), pp.497-512.
- 김영성(1997). 한국인의 호주이민과 정착.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0, pp.49-78.
- 김원배(2009).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3), pp.449-470.
- 김효순, 하춘광(2010). 결핵환자의 가족지지, 우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pp.157-182.
- 노길희(2012). 뉴욕시 거주 한인 노인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 복지학*, 40, pp.159-189.
- 노병일, 모선희(2007).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pp.16-27.
- 류연주, 천은미, 심윤수, 이진화(2008). 폐쇄성질환에서 우울증상의 빈도 및 위험인자.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65(3), pp.11-18.
- 류연지(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민미희, 이순형, 이옥경(2005).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3(11), pp.109-125.

- 박명숙, 강희경(2009). 미국 이민 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 변인. *사회과학연구*, 25(1), pp.79-93.
- 박형원(2010). 해외이주 한인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 재영 한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pp.306-316.
- 설병수(2001). 해외이민의 명암: 호주 내 한인들의 이민동기와 실제 생활. *재외한인연구*, 11, pp.57-98.
- 손신, 이정미, 류철원(2007). 뉴욕시 거주 한인 노년층 이민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과정상의 요인들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pp.79-108.
- 손신영(2006).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6(3), pp.601-615.
- 송지영, 이태영(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pp.241-266.
- 송광례(2009). *결핵전문병원 폐결핵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창원
- 안황란(2007). 미국 이민 한국 여성의 문화이입적 스트레스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6(2), pp.160-173.
- 양명득(2006). *호주한인동포 - 그 역사와 정체성*. 재외한인연구. pp.121-136.
- 오성희, 박기환(2007). 이민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계 호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pp.55-69.
- 윤명숙, 이묘숙(2011). 지역사회 여성노인들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6, pp.89-115.
- 이규영, 김경미(2010). 호주의 다문화주의정책과 이주민 참정권. *국제정치논총*, 50(1), pp.445-468.
- 이민수(2005). *우울증 119*. 서울: 가림출판사.
- 이은주(2003). 실직의 부정적 결과와 인지된 사회적 지지.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충주, 2003.10.
- 이인정(2007). 남녀노인의 우울,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6, pp.159-180.
- 조공남, 김용섭(2011). 한국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26(2), pp.245-266.

- 정선영, 오영림, 배이진(2013). 사회적 관계망, 일상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가 외국인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4, pp.1-35.
- 정영미(2014). 재미한인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pp.192-202.
- 정영미(2011). 중년층의 삶의 의미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3(3), pp.209-220.
- 최은수(1996). 재미 한인 이민자들의 사회부적응 실태와 정책적 대안이 갖는 통일과 교육에의 시사성. *교육사회학연구*, 6(2), pp.93-110.
- 최현주(2006).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한경혜, 김주현, 김경민(2003).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3(2), pp.155-170.
- 한금선(2000). 미국 이민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증상, 건강증진 행위,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3), pp.606-618.
- 허제은, 태영숙(2014). 중년여성의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성인간호학회지*, 26(2), pp.181-190.
- 호주동아일보(2014). 호주 이민자들 어디에 거주하나?. 2014.3.21일자.
- 호주한인50년사 편찬위원회(2008). *호주한인 50년사*. 도서출판 진흥.
- 홍달아기 외(2009).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문화적응 단계별 특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pp.1-22.
- Ataca, Bilge & John W. Berry (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pp.13-26.
- Aycan, Z., & J. W. Berry (1996). Impact of Employment-Related on Immigra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daptation to Canada. from <http://www.cpa.ca/cjbsnew/1996/fulaycan.html>.
- Beiser, M. N., Hou, F. (2006). Ethnic identity, resettlement stress and depressive affect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Science & Medicine*, 63, pp.137-150.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pp.9-25. in A. M. Padilla(Eds).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68.
- Berry, J. W., Kim U. C.,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IMR*, 21(3), pp.491-511.
- Birman, Dina (1998). Biculturalism and Perceived Competence of Latino Immigrant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6(3), pp.335-354.
- Birman, Dina, Edison J. Trickett & Andrey Vinokurov (2002). Acculturation and Adapation of Soviet Jewish Refugee Adolescent: Predictors of Adjustment Across Life Domai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5), pp.585-607.
- Birman, Dina, Edison Trickett & rebecca M. Buchanan (2005). A Tail of Two cities: Replication of a Study on the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in a Different Communit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1-2), pp.83-101.
- Buhler, C. (1968). The Course of Human Life as a psychology Problem. *Human Development*, 11, pp.184-260.
- Burr. W. R. (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 of marriage over th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 pp.25-48.
- CA (1999a). *Australia Multiculturalism for a New century*.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p.1.
- Cabassa, L. J. (2003). Measuring acculturation ;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Hispanic Jouranl of behavior Science*, 25(2), pp.127-146.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pp.300-314.
- Cullar, Israel, Arnold Bill & E. Maldonado Roberto (1995).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 II: A Revision of the original ARSMA Scal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7(3), pp.275-304.
- DIAC (2008). *The People of Australia..* Canberra: Common Wealth of Australia Immigration Advisory Council, Inquiry into the Departure of Settlers from Australia. 1973. CA (1999a), pp.23-24에서 재인용.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york: W.W. Norton & Company. Inc, pp.266-268.
- Griffin, J., & Soskolne, V. (2003).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Thai migrant workers in Israel. *Social science & Medicine*.
- Hong Jeaseung. (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Recreation Participation Patterns,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among Korean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New mexico.
- Hurlock, E. B. (1974). *Development psychology*. tata McGrow-Hill Publishing Company Ltd. Newdelhi. pp.671-679.
- Hovey, J. D., and Magana, C. G. (2002). Psychosocial of Anxiety among Immigrant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mplication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Culture drivers Ethnic Minor Psychol*, 8(3), pp.274-289.
- Jacobson, D, E. (1986). Types and timing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pp.250-264.
- Jon, S. h. (1997). *Consdq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adult Korean immigra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 Kim, M. T., han, H. R., Shin, H. S., Kim, k. B., & Lee, H. B.(2005). Factors a ssociated with depression experience of immigrant populations. *A study of Korean immigra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9(5), pp.217-225.
- Kovacev, Lydia & Rosalyn Shute (2004).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 Refugees Resettled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pp.259-267.
- Lee, I, S. (2004).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igrant workers' health: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Mills, T. S., & J. C. Henretta. (2001). Racial, Ethnic, and Sociodemographic Differences in the level psychosocial Distress among Older Americans. *research on Aging*, 23(2), pp.131-152.

- Min, J. W., Moon, A., & Lubben, J. E. (2005).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overtime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and non-Hispanic white elders: evidence from a two-wave panel study. *Aging & Mental Health*, 9(3), pp.210-222.
- Neugarten, B. L., Harvighu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92, pp.134-143.
- Noh, S., & W. Avison (1996). Asian Immigrants and the Stress Process: A study of Korean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 pp.192-206.
- Papalia, D. E., & S. W. Olds. (1974). *Human Development*. McGraw-Hill KogaKusha. Ltd. Tokyo.
- Peach, C. & S. Smith (1981). Introduction. in C. Peach(ed). *Ethnic segregation in cities*. Lon: Croom Helm Ltd: pp.9-22.
- Porters, A. (1995). *The Economic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bm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essel sage Foundation.
- Pothukuchi, V., F, Damanpour. C. C. Chen, & S. H. Park. (2002). National and organizational culture Differences and International Joint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3(2), 243-265.
- Poyrazil, Senel, R. Philip., Adria Baker., kavanaugh., and Timimi. nada Al. (2004). Social Support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cculturative Stree in Inter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 pp.73-82.
- Redfield, R., R. Linton. & M. J. Herskovits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pp.142-152.
- Searle, W., & C, Ward.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pp.449-464.
- Seo, J. H., & Ryu, H. S. (2010). Relations among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1(2), pp.169-177.
- Shenkar, O. (2001). Cultural Distance Revised Toward a more Rigorou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ulture Differ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293, pp.519-535.

- Sykes, I. J. & D, Eden. (1987). Transi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train.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6, pp.293-298.
- Vedder, p., & Virta, E. (2005). Language, ethnic identity and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youth in the Netherlands and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317-337.
- Vijver, F. j., & K. Phalet. (2004). Assessment in Multicultural Groups: The Role of Accultur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3(2), pp.215-236.
- Warshaw, M. G.(1992). Analyzing patient responses by domain using global statistics: applications to quality of life. *Methods psychiatry research*, 1992(2), pp.225-231.
- Weeraporn, S. (2004). *Living and Working Experiences among Thai Immigrant Wome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Winkelman, M. (1994). Cultural Shock and Adapt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pp.121-125.
- Ying, Y. M. & L. H. Liese (1991). Emotional Well-being of Taiwan Students in the U. S.: An Examination of Pre-to Post-Arrival Differenti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 pp.345-366.
- Zang, X. (2000). Ecological Succession and Asian immigrants in Australia. *International Migration*, 38(1), pp.109-120.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pp.30-41.

A Study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aged Korean Immigrants in Sidney: Mediation Effect of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Ha, Choonkwang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aged Korean immigrants in Sidney and to investigate the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relation which seem to mediate these 2 variabl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233 middle-aged Koreans living in Sidney by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s.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life satisfaction,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are directly affected by social support, whil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re not directly affected by acculturation. Further, life satisfaction is negatively affected by depression. Second, life satisfaction is affected by social support with the mediation of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variables. This paper provides information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s for middle-aged Koreans living in Sidney and basic data of welfare policy for future immigrants in Korea. Further, it will provide meaningful suggestion point in establishing and propelling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which just perceives the necessity of multi-culture and begins multi-cultural policy.

Keywords: Social Support, Satisfaction in Life, Acculturation, Depression, Middle-Aged Koreans in Sidney